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4월 19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자원재활용팀장 최명환 ☎440-3571 • 담당자 장진희 ☎440-35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어렵지 않아요

- 생수, 음료병 ... 비우고 · 라벨 떼고 · 찌그러뜨리고 · 뚜껑닫기 -

- 인천시 4월~6월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집중 홍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하는 생수와 음료 제품은 연간 약 20만톤에 이르지만 별도 분리 회수량은 약 3만 6천톤에 불과하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4천 5백톤이 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별도배출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높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 장섬유, 용기·시트류 등의 고품질 재생원료

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비닐로 배출)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고 뚜껑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는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이용해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탁주」와의 협약을 통해 유색 막걸리병 ‘소성주 플러스’ 약 66만개(23톤)를 투명페트병으로 바꿔 나가는 등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자원순환가게와 무인회수기를 운영해 깨끗하게 분리된 투명페트병을 현금이나 이음포인트로 보상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탄소중립포인트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이 깨끗할수록 순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별도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안내 홍보물
2. 인천자원순환사업 관련 사진자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1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2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3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붙임2.

인천자원순환사업 관련 사진자료



소성주 플러스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배출 방법 홍보지



무인회수기